

09.11.2025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The Dedication of the Lateran Basilica)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톡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가톨릭 성가 59> 주께선 나의 피난처	<가톨릭 성가 25> 사랑의 하느님	<가톨릭 성가 173> 사랑의 주여 오소서	<가톨릭 성가 6> 찬미 노래 부르며

제 1독서 | 예제키엘 47,1-2. 8-9. 12

화답송 |

◎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좌) 하느님은 우리의 피신처, 우리의 힘. 어려울 때마다 늘 도와주셨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네. 땅이 뒤흔들린다 해도, 산들이 바다 깊이 빠진다 해도. ◎

○(우) 강물이 줄기줄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네. 하느님이 동틀 녘에 구해 주시네. ◎

○(좌)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야곱의 하느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네. 와서 보아라, 주님의 업적을, 이 세상에 이루신 놀라운 일을! ◎

제 2독서 | 코린토 1서 3,9-11. 16-17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집을 선택하여 성별하고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리라.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2,13-22

<감사송- 그리스도의 배필이며 성령의 성전인 교회의 신비>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는 집에 자비로이 머무르시며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 주시어

저희가 성령의 성전이 되고

거룩한 생활로 주님 영광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나이다.

또한 눈에 보이는 이 집으로 교회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가 나날이 거룩해져

무수한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오늘의 복음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14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엮어 버리셨다.

16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17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18 그때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 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19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20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마흔여섯 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21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22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가톨릭 교리 - 연옥(Purgatory)란?



하느님을 믿고 세례성사를 받아 구원 공동체에 들어온 그리스도교 신자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갈라 5,6)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현세의 삶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하느님께 나아가 자신의 인생 전반에 대해 셈을 바치는 심판을 받게 된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실천한 사랑에 대해 물으실 것이다.

사랑이신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살려면 우리 또한 온통 사랑이어야 한다.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하려면 티끌만 한 이기심도 없어야 한다. 이기심은 하느님과 반대되는 것이요, 따라서 하느님과 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가 죽는 순간, 완벽한 사랑의 상태를 이룩했고 더 이상 자기 안에는 티끌만 한 이기심도 남아 있지 않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을까? 여기서 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례성사를 받고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아직 남아 있는 '인간 본성의 불안정함과 나약함', 곧 '죄로 기우는 경향'에 굴복하여 자주 죄와 잘못을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죄스러운 인간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정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단한 정화의 노력은 일생 동안 지속된다. 살아생전에 이기심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면, 죽은 후에 반드시 정화를 거쳐야만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근거로 죽은 후에 정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일까? 가톨릭 교회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의 관습에 근거해서 죽은 후에도 정화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유다 마카베오는 우상들의 패를 착용한 죄를 범하여 전사한 유다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십시오 하느님께 탄원하며 간청하였고,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을 위해 속죄의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2 마가 12,38-45 참조), 유다는 죽은 다음의 정화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와 제물을 바쳤던 것이다.

교회는 초기부터 죽은 이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바치고 미사를 봉헌해 왔다. 교회는 초대 그리스도교 이래로 죽은 이들에 대한 기억을 커다란 신심으로 소중하게 간직하여 왔으며, 죽은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거룩하고 유익한 생각이기 때문에(2마카 12,45 참조),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바쳤다. 이렇게 교회가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 정화를 거쳐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노 성인(+430년)의 어머니 모니카 성녀(+387년)는 죽음을 앞두고 단 한 가지, 곧 주님의 제단에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한다. 모니카 성녀가 죽은 후의 정화를 믿지 않았다면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 차례의 공의회 결정을 통해서 죽은 후의 정화, 곧 연옥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피렌체 공의회(1439)는 살아생전에 참회의 결실을 이루지 못한 이들, 곧 보속을 완수하지 못한 이들은 죽은 후에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트리엔트 공의회는 '연옥에 관한 교령'(1563)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 가톨릭 교회는 여러 공의회를 통해서 "연옥이 존재하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은 신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특별히 거룩한 미사성제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왔다."

충만한 사랑과 전능을 지니신 하느님께서서는 살아생전에 사랑과 회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 이들에게 남아 있는 허물을 씻어 낼 마지막 정화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정화의 고통은 우리의 구원, 곧 영원한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기도 하다. 요약하자면, 연옥은 불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 인간이 완전한 사랑이신 하느님과의 온전한 일치를 위해 겪는 정화 과정이다. 이런 정화 과정은 죽은 후 하느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연옥은 완성되지 않고 사랑 속에서 성숙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하고 무한하며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의 한 순간이다.

그리스도인의 정화 (연옥 교리) - Fr.전인결 요한보스코 신부

우리는 종종 연옥을 지옥도 천국도 아닌 중간 어딘가로 막연히 생각하거나, 불 속에서 별을 받는 두려운 곳으로 떠올리곤 하지요. 초기에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옥을 '불로 정화되는 장소'로 설명했으며, 단테의 《신곡》에서도 그러한 이미지를 '불로 정화되는 물리적 공간'으로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전해주는 연옥의 참된 의미는 훨씬 더 깊고 따뜻합니다.

'연옥'을 이해하려면 먼저 '은유'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유는 그리스어 메타포(metaphor)에서 온 말로, 'meta'(너머)와 'phor'(옮김)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저 '너머로 옮긴다'는 뜻이지요. 즉, 은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를 통해 하느님의 신비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혼인잔치'라는 은유를 사용하시자,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 환대, 사랑, 친밀함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것처럼 말이지요.

연옥을 설명할 때도 '불'이라는 은유적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불은 모든 것을 태워 버리는 두려운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 곧 '사랑의 불'입니다. 하느님의 용서로 죄는 사라졌지만, 그 죄가 남긴 흔적들,

왜곡된 관계, 아픈 기억, 상처 입은 내면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옷을 벗는 것처럼, 남아 있는 불순물들은 사랑의 불 안에서 정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유는 단순히 장식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 하느님의 의미를 드러내고, 그 의미를 통해 세상을 구원의 언어로 변화시키는 통로입니다. 즉, 신앙의 은유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닙니다. 따라서 연옥도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이며, 하느님 사랑의 품 안에서 일어나는 따뜻한 포옹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끝내 다가서지 못한 마음의 옛갈림, 그리고 전하지 못한 진심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연옥은 그런 미완의 상처, 우리가 다 해소하지 못한 아픔과 불완전함마저도 하느님께서 끝내 안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연옥을 두려운 곳이 아니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사랑의 기다림, 정화의 은총의 자리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품 안에서 마침내 온전히 사랑받는 존재로 정화될 것입니다.

공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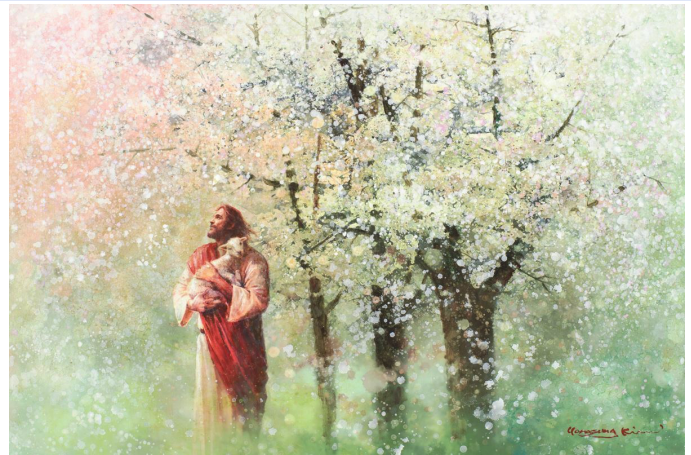
1. 공동체 식사 및 간식 나눔

- 오늘 미사 후에는 '식사 나눔'이 있습니다.
- 다음 간식나눔은 **11월 23일**에 있습니다.
- 12월부터 1월까지 식사 및 간식 나눔이 잠시 방학을 맞이합니다. 잠시 쉬어가면서, 앞으로의 만남을 더욱 기쁘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나눔 준비 및 뒷정리를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 소공동체 반 참여 및 이동 가능 안내

작년과 마찬가지로 현재 속해있는 소공동체 반에서 다른 소공동체 반으로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11월 29일 (토)**까지 '성함, 세례명, 희망 소공동체반'을 적어서 성당 이메일 주소 혹은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해주신 내용은 12월에 새로이 선출되는 각 소공동체장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요한 15,14)

3. 여정 '시즌 6' - 영적 독서 모임

- 독서 모임을 신청해 주신 분들께서는 미사 후에 성전 입구에서 책을 받아 가주시기 바랍니다.

* '영적독서 첫 모임': 11월 18일(화) 저녁 7시

* 모임을 위해 아래 분량을 읽어주세요

- '기도의 체험' : ~ 45p

- '굽어 돌아가는 하느님의 길' : ~ 51p

| 미사 참례자 수 |

10월 26일	유아·청소년: 20명	성인: 46명
11월 2일	유아·청소년: 20명	성인: 48명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퀴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미사 후 뒷정리 |

이번주 (11월 9일)	마르코반
다음주 (11월 16일)	마태오반

| 봉헌금 & 교무금 | (11월 2일 ~ 11월 7일)

봉헌금	\$ 197				
교무금	\$ 925				
구민식	권묘순	김천주	서미숙	안영규	양홍석
이국원	장호훈	정수민	정은영	조성희	주정자
최현주	김건혜	황병옥	남궁영근		

| 기도 지향 |

-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 * 이근화 프란치스코 형제님 건강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